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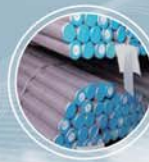
228 화북

2018

가을 Autumn

제18권 3호 통권 71호





제강원료로 쓰이는 합금철,
자동차·중장비 및 건설소재로 쓰이는 봉강.
없어서는 안될 철강산업의 기초...



DONGIL INDUSTRIES CO., LTD.

취급제품 | 봉강 · 마봉강 · 선재(CHQ) · 필링마 · 합금철

동일산업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966년 회사 설립 이래 50여 년의 역사동안 오직
고객의 만족, 최고의 품질, 최저 가격, 최상의 서비스를 목표로 뛰어왔습니다.

동일산업주식회사는 우리 인류의 풍요로운 삶의 보장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인의 이마에서는 밀알같은 땀방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일산업주식회사

DONGIL INDUSTRIES CO., LTD.

www.dongil.co.kr

· 봉강사업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TEL.054-285-7251

FAX.054-285-6008

· 합금철/주조 사업부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TEL.054-285-3201

FAX.054-285-4151

·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 산학협동재단빌딩 11층

TEL.02-312-2201

FAX.02-312-2200

CONTENTS



제자 : 혜정 류영희(題字 : 蕙汀 柳永喜)

2018 Autumn
제18권 3호 통권 71호

- 시론**
- 04 4·19혁명의 세계 4대 민주혁명화와 과제 / 유인학
제18차 2·28민주포럼
- 07 한국정치에 있어서 대구
스페셜 리뷰
- 16 뮤지컬 2·28 그날 오후
- 18 KBS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
특별기고
- 20 하청일 선생을 기리면서 / 장주호
- 24 꺼지지 않을, 타오르는 햇불 / 조해정
자유기고
- 28 1950 대구풍물 세 번째 이야기,
그 옛날 추억의 명소, 대구 달성공원 / 상희구
2·28문예광장
- 33 시 / 어머니경 / 김선평
- 34 시조 / 곤을동 / 김미정
- 35 수필 / 배롱나무에서 선비를 보다 / 서정길
청소년문예마당
- 37 시 / 이~빨 / 김승연

- 38 수필 / 이젠 국가기념일로, 젊음의 항쟁 2·28민주
운동 / 박진수
연중기획
- 40 예비교사연수
- 42 명덕역 2·28기념무대 고교동아리 공연
- 44 역사路, 민주路
2018년 초중고 2·28민주운동 포스터 공모전
- 45 공모전 시상식 이모저모
- 47 공모전 심사위원장 심사평
- 48 공모전 우수작품
2·28뉴스
- 49 2018년 인문학강좌
- 51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임시총회
- 52 2018 고교생 아카데미
- 53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외벽 사인 설치
- 54 2·28민주운동 소개 글 영문번역 개정
- 54 대구교육박물관 개관
- 55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단체견학
- 5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소식

표지사진 : 2018년 6월 4일에 제작한 대구상원고의 2·28기념탑 '정의의 함성'.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계승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2·28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5-10-139462-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정산
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사단
법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발행인 노동일
편집인 김약수
편집위원
박명철, 장영향, 이준복, 임병욱
인쇄처 신문인쇄사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41968)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2·28민주운동기념회관)

전화 053-257-0228
팩스 053-254-0228
홈페이지 <http://www.228.or.kr>
이메일 228minju.hanmail.net
인쇄 2018년 10월 24일
발행 2018년 10월 24일

본 책자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함.

4·19혁명의 세계 4대 민주혁명화와 과제



유인학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전 국회의원

(一)

세계 인류의 이상과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다.

특히 국가라는 조직 사회는 그 존재 이유가 모든 구성원인 국민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간 생존의 물질적 보상과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를 구성하여 다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유로운 사회생활이다.

그리고 특정 종교인은 자기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여 사후 이상사회인 천당이나 극락 등에 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인류 사회의 보편적 이상은 기본적 생활을 위한 물질적 풍족과 자유세계의 실현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二)

인류 역사상 국가를 구성하고 특히 민족을 기초로 한 국가는 많은 시련을 거쳐 왔다. 정치사회 경제구조를 변혁시켜 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국가 사회 건설을 위해 수많은 환란과 정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정변 중 근세의 가장 사회적 큰 변혁은 여섯 번의 혁명과 두 번의 세계대전이다.

이상적 국가는 절대적 왕권이나 독재사회에서 근대의 민주국가를 수립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로운 사회의 보전을 추구하는 정치 사회 민주화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경제적 부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세 혁명을 열거하면 첫째로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은 절대적 왕권까지도 법의 통치(Rule of Law)에 의하여 한다는 법치주의 확립, 둘째로 피식민지 백성도 동등한 인간이며 대의제가 수립된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 셋째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세습적 왕권과 봉건제도를 부정한 프랑스혁명(1789년)을 들 수 있다. 그 후 사회의 구시대적 봉건 제도와 부의 독과점을 철폐한 소련의 공산혁명(1917년)과 세계최대인구의 대청제국과 군벌을 물리친 중국의 신해혁명(1911년)과 공산당 집권(1949년)은 구

체제를 분쇄하고 평등사회 수립에 기여했으나 강력한 일당독재나 특정인의 계급독재로 인류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건설」 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상적 혁명일 수 없다. 그러나 1960년에 이룩한 한국의 4·19민주혁명은 전 인류가 영구히 기념하고 발전 시켜야 할 모범적 민주혁명이다.

(三)

4·19민주혁명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어렵다는 한국에서 이룩한 세계적 모범 혁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 142개국 중 제일 먼저 태평양 전쟁은 물론 1950년의 참혹한 한국전쟁 후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라는 비판에서 비무장 학생들이 주도해 강력한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선진적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신생국 민주혁명의 효시이다. 비록 2차 세계대전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연합국이 승리하여 민주선진국 미, 영, 프랑스 등과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세계질서를 주도하였다. 세계 지도상의 면적이나 인구가 집중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와 중앙아시아 등은 연합군의 승리를 누렸으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미개발 상태였다.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자력으로 민주혁명 그것도 비무장 비조직적 학생과 시민이 주도하여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한국의 4·19혁명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186명의 사망자와 6,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당시 미국 CIA의 분석에 의하면 1960년 당시 한국 인구의 20%가 넘는 4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비무장 비폭력으로 민주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4·19민주혁명 이후 터키 등 다른 신생국도 민주혁명이 잇달아 발생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정치 사회질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4·19혁명은 세계4대 민주혁명으로 추앙되고 있다. 혁명의 규모나 희생자 수는 소련의 볼셰비키혁명과 중국의 신해혁명과 공산당 집권이 반대하지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되어 독재체제에 앞장섰기 때문에 민주혁명일 수 없다.

(四)

4·19혁명의 위대성은 근세 신생국의 모범적인 민주혁명이라는 것 못지않게 신생국 산업화의 전형적 방향제시란 점이다.

4·19혁명은 한국 및 신생국 민주화의 효시이고, 4·19 주체인 4·19세대는 한국 산업화의 주역들이다. 4·19세대는 대학교 고등학생시절 데모한 후 산업현장에 투신 1960년 국민소득 5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7위의 무역 대국, 그리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주역들이다.

민주항쟁을 하던 그들이 농어촌 부흥으로 굶주림을 면하고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근로자, 월남전 근로자가 되고 오늘의 세계적 기업인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석유공업, 삼성전자, LG전자를 건설한 제1세대 창업세대였다. 그들이 자유민주화를 외치고 뛰었던 열정으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든 주역들인 것이다.

세계 역사상 4·19민주혁명과 같이 최단 시일 내에 한국은 전후의 갈등과 빈곤의 굴레와 독재의 사슬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기적을 일구었다. 이는 한민족이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업적이며, 인류 전체의 정치사회 유산인 것이다.

정부는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거행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의 출발점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1960년 2월 28일 독재체제에 항거한 이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3·8대전, 3·15마산, 4·4전북대, 4·18고대 그리고 4·19혁명을 유발하여 민주화의 스타트업이 되었다.

지난 4월 17일 4·19혁명의 세 공범단체인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는 4·19국민축제 기간 중 역사의 현장인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대규모 민주 행진을 하였다.

맨 앞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앞세우고 취타대에 이어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의 대열에 이어 대구 2·28, 대전 3·8, 마산 3·15, 서울 4·18고대, 4·19행진에 이어 6·3, 광주 5·18, 6·10항쟁에 이르는 민주 대행진이었다. 그 뒤를 이어 빈곤타파에 앞장 선 농협,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근로자, 직능단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80이 넘는 창업세대들이 20대 후배들과 손잡고 군악대에 발 맞추어 대행진을 감행하였다. 3시경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한 행진은 5시경 광화문에 모여 「4·19혁명의 세계4대 민주화」 선언을 영, 미, 프랑스 대표들과 한국 대표가 선포하였다. 특히 그날의 대행진에 진정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융화합을 상징하기 위하여 정영숙 한국 한식협회 회장의 지도하에 「2018인분의 대용화합 비빔밥」을 만들어 같이 나누면서 올바른 국가와 민족 발전의 방향성 확립을 위한 대 합창을 연주하였다. 당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상징인 코리아나의 흥화자 가수는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를 다 같이 합창하여 4·19민주혁명의 뜻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75억 인구 중 8,000만이어서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제적 분쟁의 중심지였고, 한반도 내 전쟁만도 930여 회를 치렀다.

단일민족으로 비록 분단국이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더라도 평화가 오고 경제적 공동체(공동시장)만 형성된다면 또 하나의 세계 기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한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히도 국제분쟁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폐를 많이 끼쳤다.

비록 우리의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궁궐 그리고 한글 등이 있지만 세계 최고일 수는 없다. 광화문에 모셔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데 한글의 창시는 575년이 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나 일본인에게는 복잡한 상념을 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시일 내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룩한 4·19혁명은 전 세계 인류가 존중해야 할 역사적 유업이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자유가 박탈된 북한과 세계 G2 강국인 중국, 가장 광대한 영토의 러시아에 대하여 인류 구원의 이상인 자유 민주와 경제발전의 상징인 4·19민주혁명이야말로 한민족의 긍지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주변 국가에 한국적 자유민주 경제번영을 전파시키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단초를 열고 이 나라 민주화 산업화의 씨앗이 된 대구 시민과 동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이제 대구가 앞장서 지역갈등은 물론 남북 갈등의 극복과 경제적 풍요, 무엇보다도 일본, 중국, 러시아가 나라다운 나라로서 우리 한국을 대접하여 국제적 공동 발전의 선구자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제18차 2·28민주포럼

한국정치에 있어서 대구

“앞으로의 민주운동은 독재에 대한 항거를 넘어
상생·통합의 민주선진사회를 열기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9월 21일(금) 오후3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대구’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번 학술세미나는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노동일)와 대한정치학회(회장 이승환 계명대 교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포럼의 진행은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부와 2부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동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번 학술세미나는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고 향 후 2·28을 포함한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앞으로의 민주운동은 독재에 대한 항거를 넘어 상생·통합의 민주선진사회를 열기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 말하며 “한국정치가 선진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상생·공영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구지역에 있어서 해방 후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역사적 흐름을 생각해보고, 50년대에는 대표적 야당도시로 3공 이후에는 보수집권 여당의 심장으로서 상징되었던 지역이었으며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의 발생지인 대구에서 이 번 포럼을 통해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지혜를 모아 보고자 대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승환 대한정치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구 는 근대 이후 한국의 국가 운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대구정치를 상징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대구를 한국정치의 섬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분석, 진단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대구가 다시 한 번 한국 민주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이승환 대한정치학회 회장



사회 :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교수

제1부 거울과 나비-대구는 변하고 있는가?

사회 : 변창구(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 윤순갑(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장환(대구교육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조두진(매일신문 문화부장)

변창구(사회) : 먼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제1부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거울과 나비-대구는 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장환 대구교육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조두진 매일신문 문화부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없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김태일(발제) : 2018지방선거가 끝났다. 지역 언론은 대구의 정치 상황을 ‘섬(島)’이라고 했다. 시·도지사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대구·경북은 파란색 바다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대구에는 새로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썸’(something new)이 생기고 있다. 대구 시 8개 구군의 기초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대구시의회에도 민주당이 괄목할만한 숫자가 진출했다. 상전벽해다.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때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 붙인 별명이라고 한다. 대구의 분위기는 이승만에게 특별히 비판적이었지만 대구를 우리나라의 모스크바라고 한 데는 더 깊고 깊은 맥락이 있었다.

1960년 2월28일 대구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은 4월 혁명의 출발이었



제1부 발제 : 김태일 영남대 교수

다. 자유당정권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대구에서 시작, 점점 북상하여 서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것이 4월 혁명이었다. 대구는 그것이 출발한 도시였다. '2·28민주운동'이라고 부르는 이 저항운동은 사실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치열함이나 규모나 지속시간 등에서 다른 사회운동에 비길 바가 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2·28 민주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선도성(先導性)'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통치에 누구도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일종의 체념적 순종(resigned submission) 상태에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처음 저항 시위를 한 것이었다. 1960년 2월28일 저항시위를 모의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던 대구의 소년들은,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두려운 새벽을 맞이하던 어린 시민군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1960년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햇불>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가 희생과 부활의 상징이라면 햇불은 선도성과 용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대구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5.16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였다. 박정희는 이 지역의 보수는 물론 진보성향의 지도자들까지 넣은 정치연합을 형성하였다. 일부 진보인사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통해 무력화를 기도했다. 박정희는 산업도시의 형성과 농촌개발의 업적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박정희에 대한 추앙은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맹목에 가까웠다. 그것에 더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창졸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비통한 극적 종말은 그의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어버렸다. 역사는 사실에 기초하고 이데올로기는 가치와 논리에 기초하는 것이나 신화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대구경북의 어떤 지도자는 이곳에서 박정희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온전한 신이다. 대구경북은 그의 신전이나 다를 바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은 신전을 지키는 근위병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신탁으로 제사장이 된 신의 딸이었다. 대구경북에서 정치는 믿음의 영역이 되었다. 박정희의 신화에 덧붙여 '지역주의'가 대구경북을 포획했다. 이것이 오랫동안 대구경북을 군부 권위주의 세력의 지지기반이 되도록 했다. 이 지역주의를 영호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주의의 기원은 호남 배제라고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기원을 신라-백제 갈등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호남 배제라는 지역주의의 본질을 면책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구조화하는 지역주의의 답론은 '거울효과'를 통해 자기강화의 길을 간다. 지역주의가 처음에 생길 때는 영남의 선형적이고 공세적 호남배제로 만들어졌으며 호남의 지역주의는 그것에 대응하는 방어적이며 저항적인 정치과정에서 생겨났지만, 그것이 일단 형성되면 누가 선형원인을 제공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역주의는 한 번 만들어지면 '거울효과'에 의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구에서 정치적 다양성의 싹은 만들어졌다.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 시민들이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 비 자유한국당 세력의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지금부터 중요하다. 또 박정희 신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련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개혁이다. 이것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거울을 깨는 일이다. 변화의 싹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구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핵심일 것이다. (발표문 요약)

윤순갑 :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이고 정리되지 않은 형태지만 늘 고민해 왔던 문제가 '한국정치가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주의 문제였다. 대구는 지역주의의 원죄의식에 젖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대부분 김태일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



윤순갑 경북대 교수

지만 몇 가지 다른 생각이 있다. 저는 대구의 정치 상황을 외로운 섬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만약 전국이 모두 파란색이라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정신사적 전통을 이어온 대구가 균형을 잡도록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대구의 보수성은 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주어진 것이라는 김태일 교수의 의견에 동감하지만 대구·경북의 지역주의는 악이고 호남의 지역주의는 선인가에 대한 것에 의문이 있다. 자신의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특별히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구가 특별히 보수적 기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구의 보수성을 자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성장환: 김태일 교수님 발표 잘 들었다. 나비효과와 거울효과를 통해 대구 지역 정치를 설명해주신 것 같다. 아직은 거울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비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한다. 우리지역의 보수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리사회는 90년대부터 포스트모던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다.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보수성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역정치와 지역주의 선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예산을 따온다면 그 지역은 그 국회의원을 계속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지역주의라면 지역주의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지역주의 선거는 문제가 많다. 조절과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다, 일면은 일리가 있으며 유권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낙선운동이나 총선연대 같은 유권자 참여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는 국민의 압력이 없으면 변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될 것이다.



성장환 대구교대 교수

조두진: 김태일 교수의 대구가 기질적으로 보수라 보는 관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실제 득표상황은 소선거구제로 인해 선거결과와 실제 득표율은 착시현상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의 선거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영남이라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보다 호남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지 않은 것이 지역차별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당시 경제개발을 하면서 영남에 산업단지과 시설을 집중시킨 것이 지역차별 의도로 인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김태일: 먼저 시간관계상 답변을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 지역주의란 말을 쓰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치적 다양성과 관용이 부족하다는 말로 바꿔 보겠다.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특정세력의 독점적 구조보다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는 구조는 무엇보다 우리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호남이나 타 지역을 의식하기에 앞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정치적 다양성과 관용이 필요하다. 좀 전에 성장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성만 가지고 생존하기 어렵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다. 호남과의 관계를 거울효과라고 말한 것은 지역주의가 발생하면 발생의 근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발생사를 따지는 것보다 거울효과를 통해 지역주의가 강화되어 나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울깨기'를 통해 우리 지역 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조두진 매일신문 문화부장



제18차 2·28민주포럼 제1부에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제2부 발제 :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제2부 한국 지역주의의 형성과 TK

사회 : 변창구(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 하세헌(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근(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병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창구(사회) : 2부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지역주의의 형성과 TK’란 주제발표를 하시고 이어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근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을 이어주시겠다.

변영학(발제) :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지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지역주의 현상 혹은 담론을 들여다보면 이질적인 여러 개의 이미지가 혼종 되거나 착시현상이 있다. 첫째 생활세계와 정치세계의 지역주의이다. 전자는 예컨대 TK에 ‘고담대구’, ‘남성우월주의’, ‘권위/보수주의’라는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그런 이유로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부정적 이미지로 치환한다. 그러나 원래 정치적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살던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사회 심리적 특성에 의해 사회화될 것이고, 또 그곳에 대한 친근감이나 애착심이 있어서 지역 출신 정치인을 선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착시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지역주의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시원주의(始原主義)적 해석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 망국론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보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갖는다는 TK 지역을 비판한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엄연히 정치엘리트의 선거동원 현상이지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박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란 엄연히 ‘정당과 정치 리더들이 제시한 복수의 대안 구조’내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주의를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결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예외적으로 동질적이며 정당체제의 특정 형태를 주조할 만한 사회적 균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당체제와 그 변화는 단지 정치엘리트 간의 이합집산이나 권력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시민사회나 유권자와는 무관하다. 정치 리더들이 권력경쟁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위로부터 만들어낸 정치균열과 그로 인해 지역별로 편향되어 나타난 정치적 대안 구조 내에서 유권자들이 반응/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형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역주의이다. 다섯째 좋은 지역주의와 나쁜 지역주의이다. 즉 영남권이나 특히 TK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나쁜(혹은 폐쇄적, 반민주적) 지역주의이고,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계열을 유일하게 선택하는 것은 좋은(혹은 개혁적, 친 민주적) 지역주의라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이러한 선악의 양분법적 해석은 특히 보다 많은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 지식인과 정치인에서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오해이다. 지역주의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기반 한다. 어떤 식으로든 크건 작건 지역적 배열로 민주정치가 표상될 수밖에 없다. 지

역주의는 어떻게 해소 혹은 완화될 수 있을까? 우선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은 부적절하다. 그는 '지역주의 망국론'을 거론하면서 지역주의를 하나의 악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주의 하에서 정치적 통합과 민주주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며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좀 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보수당과의 연정과 중선거구제를 제안하였지만 보수당의 거절로 무산되었고 그 후 국정운영의 동력은 쇠퇴하였다. 노무현정부의 반(反)지역주의적 노력은 지역주의를 해소/완화하는데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주의 하에서도 민주주의적 진전과 경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의 반(反)호남주의적 보수동맹체제 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충청-호남의 역(逆)지역주의 선거연합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지역주의가 시민사회나 유권자들의 고질적인 출신/연고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엘리트들 간 권력경쟁의 독특한 산물이라면, 지역주의를 해소/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TK 지역주의의 해소는 간단하다. 지역 출신(이라고 여겨지는)의 경쟁력 있는 개혁적 정치인이 나와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결과로 보수 독점적 지역정치는 완화된다. 지역주의의 완화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지 '지역주의 망국론'처럼 선악의 양분법으로는 어렵다. 즉, 특정 지역이 차별받거나 우대를 받는 부당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조율하는 보편적 공공정책의 개선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끝으로 선거제도이다. 지역주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소선거구제 대신 노무현정부는 중대선거구제를 보수당에 제안하였는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완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지배 정당들의 후보자들이 더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정치학계에서 제안하는 비례대표제 강화는 민주적 대표성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표문 요약)

하세현 : 발제에서 지역주의의 실체가 없다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빌려와 지역주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 요소는 지역주의라고 봐야 될 것이다. 역대 선거의 득표분포는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지역주의의 긍정적인 것이라는 표현도 지역주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간과하기는 어렵다. 지역주의는 쉽게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를 규정해온 1차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 총선에서 비 한국당 후보가 4명이나 대구에서 당선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 한국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발생지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구는 정신사적 측면에서 자랑스러운 도시다. 우리 의식 중에서도 지역주의가 해소되고 있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지역주의 문제는 일단은 고비를 넘은 상황이라 보이지만 앞으로 중앙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를 해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승근 : 발표문을 보면서 변영학 교수께서 많은 자료를 인용해 논문



하세현 경북대 교수



이승근 계명대 교수

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하나로서 87년 이전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초야도’ 현상을 지역주의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선거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구조 속에서 지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정치 엘리트의 선거동원 현상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주의 자체를 선거 시기에만 발현되는 임시 가설물로 보는 주장 역시 지역주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있다. 저는 지역주의란 인간의 본질적 갈등구조의 속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엄청난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역의 분리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이 존재한다. 지역주의를 없애는 측면보다는 지역주의가 존재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

정병기 : 유럽에는 지역주의가 정말 심각하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다. 스코틀랜드, 캐나다, 스위스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지역주의 문제가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지역주의 축에 못 들어간다. 또 70년대 후반 신지역주의가 발현하고 있다. 이는 언어나 종교와 관계없이 잘사는 지역이 분리를 원하는 현상이다. 우리의 지역주의는 향토성 투표 현상이다. 지역주의는 향토성 투표와 분리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선거동원 현상일 뿐이다.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영호남 지역 간 문화적, 감정적 갈등은 지역주의로 볼 수 없다. 향토성 투표는 정치동원 현상일 뿐이지만 정치인들이 망국병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김태일 교수가 말씀하신 거울효과는 적절한 표현이며 지역주의에 관련한 유권자들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유권자 성향에 편승해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과도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 지역마다의 차이를 양성화시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 같은 나라는 자신의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정당법상 지역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의를 양성화할 수 있고 중앙정치에도 상원을 설치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

도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출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지역구 선거는 선출방식의 문제일 뿐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나라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변영학: 좋은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셔서 고맙다. 에세이처럼 쓴 글이라 단단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한다. 하세헌 교수께서 지적하신 좋은 지역주의와 나쁜 지역주의의 표현은 지역주의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지역주의란 프레임 밖에서 지역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쓴 표현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정병기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라 보기도 어렵다. 우리는 유래를 찾기 힘든 동질적 국가이다. 최근 지역주의가 완화된 이유는 대구시민의 성향과 유전적 기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최근 대두되는 중앙과 지방의 지역주의는 심각하다는 점 동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자치단체장들과의 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접근하는 것 등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변창구(사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오늘 아침 신문의 논조를 유심히 살펴봤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차는 엄청나게 컸다.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시각차이가 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 지역주의는 남남갈등의 하나다. 지역주의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간단히 보기도 어려운 문제다. 언론도 외눈박이 언론이고 교수도 외눈박이 교수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일 회장이 말씀하신 2·28정신은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발전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변영학 교수가 말했듯 지역주의 안에 들어가면 지역주의의 밖이 안 보인다. 역지사지란 말은 쉽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2·28기념사업회 노동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제18차 2·28민주포럼 제2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뮤지컬 『2·28 그날 오후』 강은희 교육감과 함께 관람해



공연직후 만난 2·28주역들과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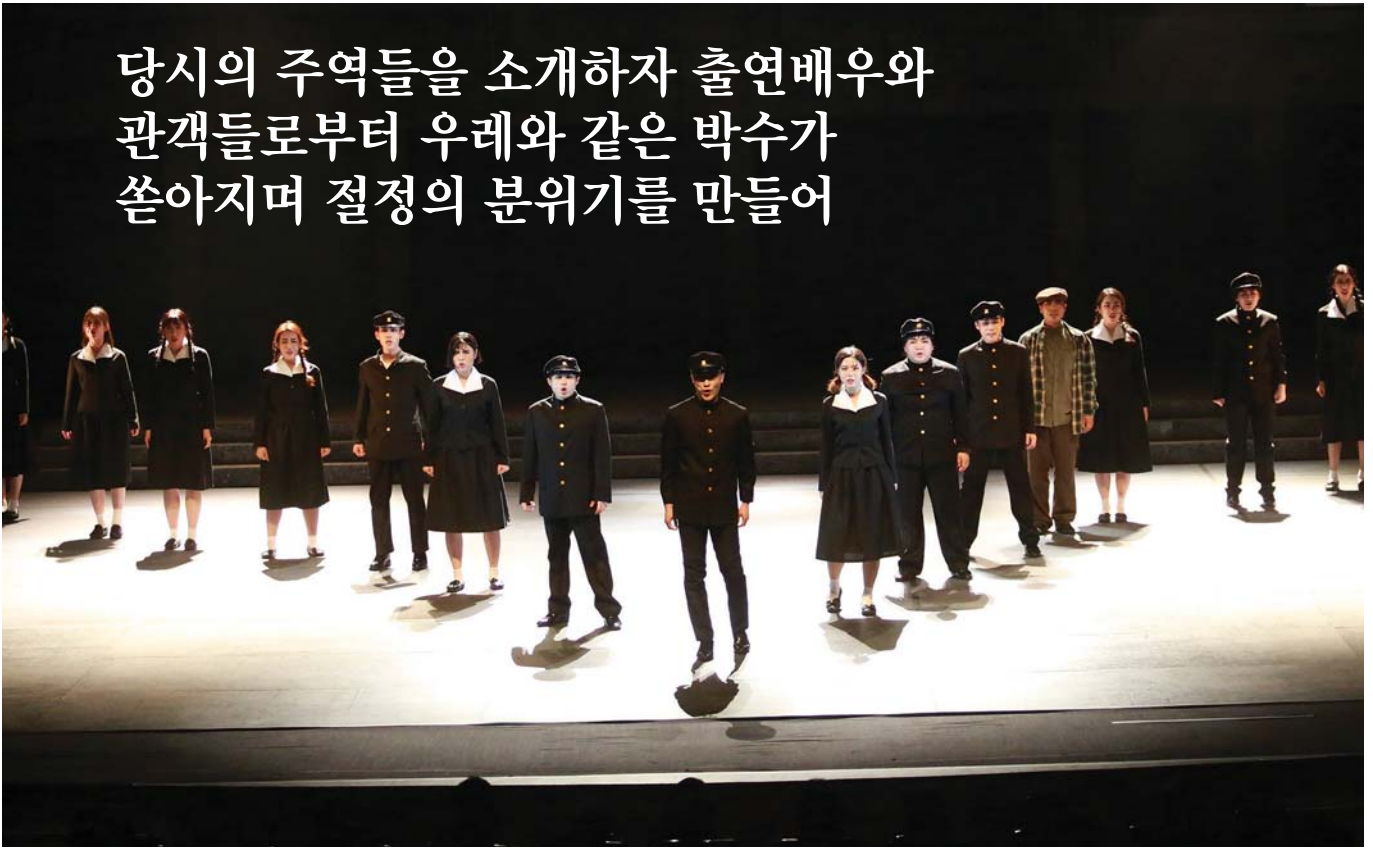
지난 7월 28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는 뮤지컬 '2·28 그날 오후'가 공연 되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제작지원하고 극단 한울림이 제작한 이 번 뮤지컬은 22명의 출연진과 28명의 스태프 등 50여 명의 제작진이 투입됐다. 2·28기념사업회 홍종흠 고문과 대구시 교육청 유경아 장학사가 뮤지컬의 자문을 맡아 2·28의 역사를 생생하게 무대에 담았으며 정철원 연출, 김하나 작가, 레드선 음악감독 등이 참여했다.

이 날 공연에는 1960년 2·28당시의 주역들인 최용호, 홍종흠, 안인욱, 박명철, 이광조 고문, 노동일 2·28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관람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공연이 끝난 직후 주연배우가 "이 자리에 2·28민주운동의 주역들이 계신다. 이 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 드린다"며 당시의 주역들을 소개하자 출연배우와 관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절정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연출을 맡은 극단 한울림 정철원 대표는 "2·28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번 공연은 문화적 관점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에 이 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지컬 『2·28 그날 오후』의 한 장면

당시의 주역들을 소개하자 출연배우와 관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절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뮤지컬 『2·28 그날 오후』의 줄거리

1950년 말과 60년 초, 전쟁의 아픔을 슬퍼하기엔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 학생들은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부했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현실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살아갔다.

1960년 주인공 민수는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해 부정을 일삼으며 시민의 기본 권리조차 빼앗는 행태가 난무하던 자유당 정권에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그와중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당국은 일요일 강제 등교를 지시한다.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자유당 이기붕의 유세장에는 모든 시민과 학생들이 응원하도록 동원하고, 28일 민주당 장면후보 유세장에는 아무도 갈 수 없도록 학생들을 학교로 강제 등교를 시키자 학생들은 분노했고 결국 대대적인 학생운동을 도모하면서 절정으로 치달는다.

2월 28일 그 날 오후, 그들은 일제히 교문 밖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다. '백만 학도들이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작은 학생들이 만들어 낸 거대한 함성은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이 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



공연 후 2·28민주운동의 주역들과 참여배우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KBS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

지역민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며 봉인되고 잊혀졌던
우리 역사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성찰한다.



2·28민주운동 주역들이 KBS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 제작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좌측하단은 뮤지컬 『2·28 그날 오후』의 배우들과 인사하고 있는 2·28 주역들

제7편 '대구 칸타타, 2·28민주운동'

10월 23일 KBS 1TV 오후 7시 35분 방영 예정

KBS대구방송총국은 역사의 이면에서 평가받지 못했던,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은 대구·경북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중항쟁사 10부작 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를 제작했다. 10부작 중 제7편이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대구 칸타타, 2·28민주운동'이다. 프리젠테어(기억추적자)가 등장해 역사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찾으러 떠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다큐 '기억, 마주서다'는 역사의 현장에 존재했던 증언자의 기억을 찾아간다. 그 기억의 시작은 한 장의 사진 또는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누락된 이면의 역사를 마지막 증언자들의 구술로 채워가는 증언 다큐멘터리이자 개인의 삶을 토대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이기도하다. 제7편 '대구 칸타타, 2·28민주운동'의 프리젠테어는 정철원 극단 한울림 대표가 맡았다.

제작팀은 지난 7월 초부터 2·28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수차례에 걸쳐 당시 주역들인 2·28기념사업회 장주호, 최용호, 홍종흠, 박명철, 이광조 고문을 인터뷰했으며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관, '뮤지컬 2·28그날 오후' 등을 취재했다.

'대구 칸타타, 2·28민주운동' 오는 10월 23일 저녁 7시 35분 KBS1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기억, 마주서다」 제작팀과 인터뷰를 마친후 기념촬영하고있는 2·28기념사업회 박명철, 홍종흠, 최용호, 이광조고문(좌측부터)



이번호 특별기고1 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장주호 전 회장의 하청일 선생에 대한 추모 글을 실었습니다. 하청일 선생은 2·28민주운동 결의문을 작성한 분으로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2·28민주운동 주역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본 기고문은 장주호 전 회장이 금년 1월에 썼지만 8개월 만에 본지 편집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글 내용에서 시차가 존재하는 점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편집부)



장주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초대회장)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곳은 제대로 절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소한이 지난 지 며칠 안 되고 대한은 아직 오지 않는 우리 날씨 가운데 가장 추울 때라 전국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모두들 난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만 때쯤이면 초가집 지붕처마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빈들에는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소리에 온몸이 오그라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면 잠자리 머리맡에 떠놓은 자리끼대접이 얼어 터지기도 했으나 지금처럼 그렇게 오두방정은 떨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날씨야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가는 것, 올해도 어김없이 2월이 닥칠게고 그 마지막 날 28일에는 두류공원에 알만은 얼굴들이 많이 한 자리 해서 2·28기념식을 올리겠지요. 특히 올해는 2·28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고 더욱 의기충천해서 만세소리가 드높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당신과 손진홍 그리고 이대우와 모두가 한자리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더욱 당신들이 그립군요.

당신들이 이렇게 훌쩍 먼저 떠나는 바람에 남은 내가 2월이 되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을 때마다 언젠가부터 산자의 미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합니다. 특히 당신에게는 다른 두 사람보다 더 더욱 애뜻함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래도 원만한 가정을 이뤄 아들 딸 두고 또 뒤에 손자, 손녀들을 봐서 옛 어른들 말씀대로 사람 사는데 가장 큰 일이라는 대를 이었지만, 유독 당신만은 살아생전에 끈을 이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 소위 먼 총각 못하고 가신 것 같아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사 요새같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태에 자식 놈 여럿 뒤쳐 골치 아픈 것 보다 옛말처럼 무자식 상팔자라고 아무 걸린 데 없이 훨훨 떠다니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마음먹고 선택한 길이 아니면 어쩐지 마음이 쩡하네요. 그

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젊은 시절에 당신의 연애(?)사건을 바람결에 듣기는 했으나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는 하도 뜬소문이 많아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바람 같은 당신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아마 2·28 하루 전날, 지금부터 58년 전 1960년 2월 27일 밤, 이대우 집에서 평소 내왕이 잦던 경(북)고의 안효영, 권준하, 전화섭, 윤종명, 정영소와 대(구)고의 손진홍, 윤풍홍, 나 그리고 (경대사대)부고의 최용호가 둘러앉아 한 참 ‘일요등교’의 부당함과 자유당 정권의 불의를 규탄하기 위한 내일의 거사를 두고 불꽃 튀기는 격론을 벌리고 있을 때, 한켠에 낮 선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는 당신을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웬 새로운 친구가 또 한 사람 왔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우리들 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대우가 “참 이 분은 우리보다 한 학년 위인 선배로 이름이 하청일”라고 소개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북)고 3학년인데 지금은 휴학 중이라며 덤수룩한 머리에 눈이 썩한데다 어딘가 범상치 않는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워낙 많아 썩 기분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는 밤이 깊어 가자 마음이 급해져 내일 시위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이 들어가니 첫 번째 문제가 우리의 주장을 발표할 선언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사 당신이 부스럭거리며 주머니에 뭔가 꼬집어내는데 보니 소위 “일요등교”를 규탄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하도 오래 흘러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여러 장이나 고민하며 썼는지 꽤 분량이 많았던 것 같았으며 뒷날 보니 경(북)고가 데모 때 읽었다는 그 선언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뒷날 이 경(북)고 2·28선언문으로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지만 당신의 운명을 옥죄는 큰 멍에가 되었다는 얘기를 당신의 동생 하청호 교장한테 듣고는 2·28과 당신은 참 애꿎은 만남이구나 싶어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2·28이 터지고 우리가 무슨 큰 사상범이라도 된다고 밤낮없이 사찰형사가 뒤를 따라 다니고 심지어 동태를 파악하며 수시로 집에 찾아와 부모님들을 못살게 구는 바람에 나도 시골 누님 댁으로 피난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야 더군다나 우리보다 한해 선배인데다 휴학 중이라서 더더욱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고 경찰로 부터 말 못할 괴롭힘을 당했다는 줄 압니다. 그 후유증으로 뒷날 늘 누가 뒤 따르며 감시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비슷한 증상을 보여 주위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날 하 교장한테 들으니 당신이 작고하고 난 뒤 모친께서 얼마나 포한이 지셨는지 “이제 더 이상 네 형 얘기는 내 앞에 하지도 말라고 하며 기억할만한 물건은 모두 정리하라”고 엄명하셔서 다 불태워 버렸지만 그래도 새날동지회 회원들과 나는 몇 장의 편지는 갖고 있다며 나한테 전해 주는데 정말 너무 오래 무심하게 지내 당신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런 눈물스런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얼마간의 치기(?)어린 또 한 번의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을 도모한 적도 있었지요. 4·19로 온 세상이 뒤 흔들릴 때 우리는 3학년이 되어 입시준비로 마음을 줄이면 서도 제대로 공부에 전념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던 5월 초순 쯤, 느닷없이 소위 2·28 주역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하는 ‘도원의 결의’(?)를 한다면서 모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까만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앙동에 있는 꽤 큰 어느 중국집에 모여 모두 비장한 얼굴에 숨소리도 죽이고 “..... 동야의 황색인종이 대동단결하여 백인 중심의 세계사를 선의의 경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의 발기문을 채택하고, 모임이름은 아마 ‘황민단’으로 한다는 결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참석자 모두가 취지에 찬동하는 의미로 흰 백지로 묶은 별책에 굵은 싸인 펜으로 자기 이름을 개성 있게 써 나갔습니다. 그 때 참석자 대부분이 경(북)고학생들이고 대(구)고는 손진홍과 나뿐이었으며 (경대사대)부고는 최용호가 있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네요, 대신 경(북) 참석자 가운데 유독 기억이 또렷한 사람은 늘 학년에 수석을 하는 모씨가 이름 끝 자에 ‘사람 인자’를 보태면 좋다고 해 쓴다는 얘기가 오래 기억에 남고, 또 한 사람은 그 학교서 최고 장사(?)라는 친구도 보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섭외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황민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당신도 참여하고 있었던 당신의 경(북)고 동기인 현승일씨가 중심이 되어 만든 ‘백민단’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2·28 직전으로 기억되는데, 손진홍씨와 내가 대구 백화점 동쪽 문 맞은 편 골목의 어느 기와집을 찾아 갔더니 ‘백민단’이란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자며 프린트된 선언문을 주고 방바닥에는 독일 나치를 특집기사로 한 타임지를 보라는 듯 펼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위압적인 분위기에 아랫사람을 대하듯 한 인상이라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다. 이런 선입견 때문인지 ‘황민단’을 받기하던 그 날도 내가 느끼기에는 왠지 너무 작위적이고 또 모두가 경직돼 있는 것 같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회의를 마치고 어느 사진관으로 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몇 몇이 눈에 띄게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에 부아가 나서 사진사가 셔터를 누를 때 앉아 버렸더니 완전히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앞서 얘기했던 경(북)고 장사(?)가 나를 질책하며 물리력을 행사 하겠다는 위기촉발에 당신이 애써 말린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그 모임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당신 또한 나에게 애써 권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썩 잘 굴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한 참 흘러간 지금에 생각하면 나 혼자 생각에 귀중하게 모인 자리를 망친 것 같아 당신에게 크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군요.

그 뒤 언제부터인가 당신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새날동지회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 우리 회원들의 지도자가 되어 농도원에 열리는 회의에 고등학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책을 옆에 끼고 찌푸린 얼굴로 뭔가 한 말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폼은 나는데 내용이 크게 없어 그 신비함은 오래는 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날동지회는 워낙 순수하고 순둥이들의 모임이라 누구하나 당신에게 언짢아하는 기색 없이 함께하면서 당신을 60년 하계방학 때 농촌봉사활동에 참가토록 해 그런대로 잘 지내고 왔다고 합니다. 그 때 나는 다른 팀으로 월성군 양북면에 농촌봉사를 가는 바람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당신을 만나려고 다녀간 뒤 주고받은 편지를 하 교장이 날 보라고 가져와서 잘 봤습니다.

하나같이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뜻함이 묻어나는 귀중한 소리였습니다. 그 때부터 당신의 모습은 초췌해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대도 당신은 무슨 놈의 나라 걱정한다고 때를 거르면서 동분서주하다가 허

기가 지고 노자 돈이 떨어지면 자주 동인동 해방골목 쌀집을 하던 내 집을 찾곤 했습니다. 내가 없을 때도 점포 앞에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당신 모습을 보고 우리 집 모친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는 빈손으로 당신을 보내지 않았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청년 시절에 나라 걱정한다고 제대로 자기 몸을 건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돌린 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순사가 자꾸 뒤쫓는다는 피해의식이 병이되어 남들이 보면 꼭 피병(?)같은 증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증세가 하루하루를 좀 먹으며 더 위중해지자 무엇보다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이 못할 일이었다고 눈물로 당시를 설명하는 하 교장의 피맺힌 얘기를 지난 몇 년 전 새날동지회 모임에서 듣고는 함께 자라한 우리 모두가 가슴 따가워 눈물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불의한 권력은 나라와 백성을 구렁텅이로 빠트리지만 그 끝자락에 있는 개인의 삶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무서운 괴물과 같아 그 폭풍의 직격탄을 맞아 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 못하는 지옥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씩씩하게 잘들 이겨 내지만 사람마다 당하는 상황과 정도가 달라 그 아픔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나 당신은 유독 그 증세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던 당신이 한참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우리 집에 불쑥 머리 깎은 승복차림으로 중이 되어 나타나는 바람에 주변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평소도 기행에 가까운 일이야 더러 있었지만 그때처럼 완전히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변신을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의 귀뜸으로 얼마간 이해는 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 전부터 부처를 철저히 숭상하는 불가 집으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려놓았는지 당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바람결에 당신이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여기저기를 수소문했지만 어디 한군데도 끈이 잡히는 데가 없어 정말 우리 인생살이가 공수레 공수거 라는 생각과 나의 당신에 대한 생각도 그 동안 빈껍데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허망 했을 뿐입니다. 그 뒤 나도 세상이 귀찮아 가까운 주변의 어느 누구와도 발걸음 얹고 칩거하기를 한참 하다가 2·28이름으로 하는 기념사업에 잠깐 한 귀퉁이를 거들다 손 놓은 지 한 참 됩니다.

그런 속에 주변의 분에 넘치는 주선으로 무슨 공로자라는 이름도 얻게 되어 고맙기는 했지만 정작 받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못한 무지렁이가 받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 이제 나도 갈 날이 다 되어선지 옛날 생각이나 당신과 지냈던 지난날을 기억나는 대로 당신의 영전에 올립니다. 뒤에 당신을 뒤따라가더라도 그동안 무심했던 나를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마음은 늘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이 기회에 밝혀드립니다. 대한(大寒) 추위에 잘 지내세요.

2018년 1월 장주효가 올립니다.

꺼지지 않을, 타오르는 햇불¹⁾

2. 어둡고 시린 밤



조해정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스토리텔러

저서

그들, 시절을 말하다1

그들, 시절을 말하다2

2·28민주운동 구술 아카이브

일요일 등교 지시

4년 전 부통령 선거 패배,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패배. 자유당 정권의 이력이다. 1960년 다시 정·부통령 선거일이 임박해졌다. 자유당은 고령(高齡)인 이승만의 대통령직 계승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럴수록 민심은 야당으로 기울고 있었다.

3월 15일 치러질 선거의 패배를 예감한 자유당은 또 하나의 해프닝을 저지른다. 대구 수성천변에서 2월 27일은 집권당인 자유당의 선거 유세가, 28일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경북도당에 지령이 내려졌다. 27일은 직장 단축 근무, 학교 단축 수업, 주민 단체 동원, 선거 유세현장 이동이었다. 28일은 직장 행사, 공립고등학교 등교, 2시 이후 행사 종료였다. 2월 28일은 일요일이다.

1960년 2월 25일 수요일. 대구의 날씨는 평년 기온을 웃돌지도 밑돌지도 않은 편이나 시린 날이다.

“다음 일요일 28일은 12시 50분까지 등교해라. 시험 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휴식 시간을 기다린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아니잖아!”

“우린 안 나오겠다.”

“아니다, 그래도 나와야지”

각 반마다 야단법석이다.

“가만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의사는 표출시켜야 한다, 세상에 이걸 알리고 주장을 해야 된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삼삼오오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급장을 몰아세웠다.

“야! 급장, 너 뭐하노?”

대의원들은 이대우를 중심으로 회의에 들어갔다. 부위원장 이대우는 언변이 좋고, 정치적 감각도 있었으며 웅변을 꽤 잘했다.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선생님의 지시를 학생들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으며, 거역할 경우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등교냐, 등교 거부냐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나왔다. 등교해서 학생들의 의사를 표출하지는 것과 등교 거부하는 것도 학교 방침에 거슬리는 것으로 소극적 저항의 표명이라는 것이었다. 둘 다 ‘시위’였다.

여러 차례 선생님들과 일요일 등교 지시의 부당함에 대하여 의견을 타진했으나 학교 측은 도화무곡의 지시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시험 친다는 조건에서 영화감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1) 이 글은 2016년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쓴 스토리텔링입니다.

수업시간에도 토론은 이어졌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선생님들의 태도에 학생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격분하여 책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일어서서 가슴을 치기도 했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버렸다. 교실은 분노했고 학교는 시끄러웠다.

이대우는 대구고 위원장 손진홍과 의논했다. 손진홍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가리가 두 쪽 나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비쳤다. 하지만 아직 다른 학교에는 등교지시가 없으니 힘을 모으기도 난감했다.

26일 저녁, 잠정적으로 시위를 결정한 이대우가 하청일에게 시위날 낭독할 선언문을 의뢰했다. 하청일은 한 해 선배로 휴학 상태였다. 그는 훗날의 키와 잘 어울리는 호남아의 인상으로, 과단성과 문학적 감수성을 갖췄다. 타고르의 시를 음미하고 민주식, 자주식도 저변에 깔린 의지가 굳은 고등학생이었다.

하청일은 우선 구호 10개 항을 적어 건넯방 하숙생에게 달려갔다. 하청일의 비장한 눈빛을 읽은 사범학교생 김연복은 구호의 몇 군데를 수정했다. 섬뜩하고 과격할 말은 피하라는 김연복의 권고를 듣고 다시 긴 '선언문'을 막힘없이 적었다.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다. 혼자서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을 군중의 힘으로 글을 짜냈다. 선언문은 완벽했다. 현 정부에 반(反)한 그 선언문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관과 현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그려져 있었다.

휴학생 하청일. 그에게 1960년 2월 28일은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2월 27일 대구고에도 일요일등교 지시가 떨어졌다. 앞산에 토끼사냥 간다는 이유였다. 준비물은 막대기 하나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산을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아우성이다.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 지시가 민주당 정권 발표에 대한 방해공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생님께 계속 항의했다. 선생님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압력을 가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이동화 선생님은 궁색한 대답에 스스로도 불편한 듯 교실을 벗어났다. 앞산에 눈이 제법 쌓여 있었다.

위원장 손진홍과 부위원장 장주효는 교장실로 갔다.

“오늘은 토요일, 4시간 수업인데 2시간으로 단축하는 이유가 일찍 집에 돌아가라는 거죠. 가서 부모님들이 자유당 유세 현장을 가시니까 빈 집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렇다면 내일은 민주당의 강연이 있는데, 등교하는 날이 아닌 일요일이니 우리는 집이나 지키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유세 현장에 가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행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합시다.”

“.....”

그러고도 한참 동안 정당정치와 선거에 관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설득했으나 관철될 리 없었다.

전망 좋은 자리에 위치한 대구고는 멀리 앞산까지 훤히 보였다. 때마침 앞산 밑 골짜기마다 흰옷 입은 동민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지나가고 있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았다. 트럭에도 뺨뺨했다. 사람들 사이로 반공청년단의 깃발이 보였다! 학생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흥분한 학생들은 울분을 어디에 터트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오늘은 자유당 선거 유세날! 주민들을 그렇게 강제로 동원하면서 내일은 일요일인데 민주당 강연에 못 가도록 강제 등교를 지시하다니..... 삼척동자도 당국의 수작을 모르지 않을 거다.”

그날 사대부고, 대구공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상고, 대구농고에도 일요일 등교 강제 지시가 떨어졌다. 대구시내 공립고등학교 8개 학교가 해당됐다.

새벽을 여는 연합 시위 계획

27일 저녁 7시. 삼덕동 이대우 집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평소에도 이들은 방과 후에 누구 집이라 딱히 정하지 않고 쉽게 발길이 닿는 집에 죽치고 앉아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펼치곤 했다. 12시 통금 전까지 들락날락거렸다. 통금 시간이면 그냥 자고, 이튿날 밥도 얻어먹고 학교 가는 게 다반사였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대우, 장주효 집이다. 이대

우 집은 부친의 한약국과 떨어져 모친과 생활했기 때문에 모이기 자유로웠다. 장주효의 집은 대구시청 앞 철도 건널목에 위치하여 오고 가는 친구들이 들르기 좋아 많이 찾았다. 여기에 장주효 모친의 통 큰 점도 한몫 했다. 장주효 집은 밥이 떨어지지 않는 쌀집이었다.

대구고의 손진홍, 장주효, 윤풍홍, 사대부고의 최용호, 경북고의 안효영, 전화섭, 권준화, 정명소, 윤종명, 하청일 등이 모였다.

이대우, 안효영은 경상중 출신이다. 권준화, 전화섭도 그렇다. 지역에서 천재 소리 듣다가 경북중학교에 낙방, 절치부심(切齒)의 3년을 보내고 경북고에 입학했다. 경북고에 입학하면서 열등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중학교 출신들은 신사적이고 차분한 편이다. 시골에서 자라고 경상중학교 나온 제2의 세력(?)들은 야성적이고 진취적이었다. 시쳇말로 촌놈 기질이 다분했다. 막걸리 한 사발 짹 들이키기에 편하게 어울리는 타입이다. 드러내놓고 견주어 본 것은 아니지만 경북중은 양복 바지요, 자신들은 청바지로 비유했다. 시끄럽기도 하고 적극적이었다. 대체로 그러했다. 그렇다고 경북중 출신과 경상중 출신이 트러블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대구고의 손진홍은 말이 좀 어눌한 편이나 동급생보다 서너 살이 많은 만큼 의젓했다. 장주효는 눈빛이 예사스럽지 않으며 적극적이며 웃을 때면 입이 바스쿠리처럼 벌어진다. 윗니 아랫니가 24개나 보일 정도다. 그러나 눈매는 매섭다.

사대부고의 최용호는 ‘짜리 몽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키가 작다. 하지만 그의 의지력이나 리더십은 확고하고 강인했다.

이들은 모이자마자 분통을 터트렸다. 장주효는 방바닥을 두드리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윤풍홍은 침묵을, 윤종명은 그 큰 몸집을 움직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숨만 땅이 꺼져라 쉬었다. 난데없는 시험과 토끼 사냥, 영화, 학예회 발표 등 어설플기 짝이 없는 일교 등교 지시의 명분에 이구동성으로 한탄만 늘어놓았다. 시간은 벌써 한 겨울밤을 끌고 와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물꼬를 텄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뜻을 표출해야 한다.”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언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단순히 일요일 등교 때문에 화나는 건 아니잖아? 자유당이 이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우리에게까지 부당하게 압력 넣는데 우째 가만 있었노?”

“그럼 우째? 지금 당장 떠오르는 좋은 방법 있나?”

“그래, 당장 내일인데.”

삼시간에 열기가 온 방을 감쌌다. 결론은 다 같이 투쟁하자였다. 의기투합한 ‘데모’였다. 그런데 사대부고의 최용호가 난색을 표했다.

“1기는 내가 학생부회장이었지만 2기는 박재철이다. 지금이 친구는 알다시피 평소 우리들과 교분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앞장서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최용호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치더니 한 면을 가리켰다. 1960년 2월 22일자 동아일보의 <휴지통>란이다. ‘유정천리’ 개사한 것과 경상북도 전역에 걸쳐 불리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개사한 ‘무정만리’는 정치요(政治謠)가 됐고, 그 ‘노가바사건’으로 사대부고는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고민하는 최용호를 겨우 설득하고, 끝까지 함께 하자는 데 동의했다.

시위를 결정하자 일찍 일교 등교 지시를 받은 경북고에서 선언문을 꺼내 놓았다. 선언문을 보며 감탄도 잠시,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언문을 여러 학교에서 같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준비할 것인가? 여러 의견 끝에 학교 별로 선언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순수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데모 행로도 정했다.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할 것인가. 마구잡이로 달려갈 것인가... 의논할 것은 한겨울 밤보다 더 길고 깊었다. 처음 하는 데모였고, 길러잡이 선배들도 없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내일이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디뎌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완벽한 준비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두려운 일

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구호를 정했다.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성한 학원을 정치 도구화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인류애를 발휘하라!’ 데모의 윤곽은 잡혔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미지수였다. 연락하는 일이 최대의 관건이었다. 경북고는 며칠 동안 여론이 형성되었고, 사대부고 최용호는 이 밤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 내일 아침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대구고였다. 시위를 한다고 결정은 했으나, 경북고보다 일요 등교 지시가 늦어 준비된 것이 없었다. 경북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선언문’도 작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대구고는 일요 등교 지시에 “차라리 학교에 나오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데모하기로 결정한 이상 모두 등교하라고 연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구고의 손진홍과 장주효, 윤흥홍은 사대부고의 최용호에게 선언문 작성을 의뢰하고 학생들을 독려하고자 집을 나섰다. 학생위원들 중 제일 먼저 서동환의 집에 갔다. 서동환은 대대장으로서 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김종하, 최종호(부재), 공정수, 임용대 등을 찾아 설명했다.

12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렸다. 각자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어두운 골목길을 숨죽이며 다시 이대우 집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경북고 학생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선언문만 발표하자고 했다. 이 밤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 다닌 대구고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엇갈리는 의견으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장주효가 드디어 격분했다.

“이놈의 새끼들! 너희는 비겁한 놈이다! 누구는 겁이 안나냐? 다 겁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 하고는 다시 일을 안 한다.”

그러자 안효영이 얼른 동의하고 나섰다.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안효영은 평소에도 솔직담백했고, 친구들과라도 잘 어울렸다. 그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거사들의

논했다.

시위 후 책임질 사람으로 경북고는 이대우, 안효영, 대구고는 손진홍, 장주효로 정했다. 만일 계획이 중간에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희생을 최소로 줄인 것이었다. 구호를 다시 확인하고 오후 1시에 대구 중구 반월당에 모여서 합동으로 시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긴밀하게 움직이고 수시로 상황을 연락하자고 다짐, 또 다짐했다.

짧은 침묵의 틈새로 긴장감과 비장함이 방안에 가득 채워졌다. 이미 그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급성장하고 있었다.

잠시 잠을 청하자고 했으나 아무도 잠자지 않았다. 시위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엔 징역을 가겠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비장한 생각이 들어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모진 고문에 이어 걸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까까머리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빛이 서렸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다. 어두운 침묵이 또 다시 흘렀다.

“아 거참, 뭇보다 장가도 한 번 못가보고 죽네.”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하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손을 잡고 유행가 ‘유정천리’를 불렀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노래가 전혀 위로되지 않을 때도 있었던가! 노랫소리는 밤의 적막을 달렸고, 오늘따라 패종시계는 몹시 친절하다. 새벽 3시. 불안과 초조가 또 다시 휘감아 졌다. ‘애국가’를 불렀다. 패종시계가 군더더기 없이 4시를 친다. 냉정했다. 그렇게 그날의 신새벽은 그들 문턱까지 와 있었다.

상희구 시인의 『대구시지』(大邱詩誌)를 통해서 바라본 1950년대의 대구풍물

세 번째 이야기 -그 옛날, 추억의 명소, 대구 달성공원



상희구

1942년 대구에서 출생
 1987년 월간 『문학정신』 등단, 「낮꿈」 외 4편, 신인상 수상
 1989년 첫 시집 『발해기행』 상재
 1996년 시집 『요하의 달』 출간
 1998~2000년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
 2010년 連作長詩 「大邱詩誌」 집필시작
 2013년 월간 『현대시학』 「대구시지」 200편 연재 끝냄,
 2012년 연작 장시집 『大邱』 제1집 출간
 2017년 1월~12월 「大邱詩誌」를 매일신문 연재
 2018년 현재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

달성공원 達城公園

달성공원은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다
 살림살이는 짜이쌓고
 이래저래 되는 일은 없고
 모듬기 짜증시럽을 때
 누가 '달성공원에 가자' 그카마
 감재기 힘이 불끈 솟는다

납딱보리밥에다
 미리치젓갈이
 포오옥 절이삭은
 정구지 짐치 곁으마
 점섬 도시락 반찬으로는

그마이고
 거계다가 계란 및 개
 고구마 및 개씩 삶아 옹고
 삭한 감, 능금 및 개만
 있어마 소풍 꺼리로는
 일등이다

가실 단풍이 좋은데
 밭씨로 공원 안은
 인산인해다
 군위軍威 효령孝肅서 온 할매는
 할배로 찾아쌓고

예천醴泉 감천甘泉서
코끼리 보로 온 아지매는
잃어뵈 알라로 찾아서
날리가 났고

저어 멀리 울진蔚津서 온
아재씨는 공원 구석구석
귀경 다하고
나갈 구녕을 못 찾겠다 카민서
허둥거리짖는다
<미아보호소>라 카는데는
밭씨로 에미 에비로 떨가뵈
아이들 너댓이 와낭상겘치
올어짖는다

달성공원 귀경은
안에서보다 밖에서가
불 끼이 더 많을 때가 많다

가짜약장사 아재씨들
뱀 구실리는 기랑,
이바구로 녀살대는 거,
원시이 재주 넘는 거,
지집아아들 사발 돌리는 거 껌정
다 불라카마

어뵈 작은 사까수나
진배 없다
거게다가 야바우꾼들
요술 부리는 거,
자칭 시민운동가들이
고함으로 열변을 토하는 거, 껌정은
참 빌난 귀경꺼리다

어데 쉴 만한 데로 갈라카마
팔공산 동화사, 동촌 유원지
가창 냉천은 너무 멀고
화원 유원지, 옥포 용연사
수성못꺼정도 너무 멀다
달성공원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 곁에서
대구 어데서나 시영市營버스나
소위 아이노리라 커기도 하던
합승차승乘車만 훗딱 집어타마,
밥상 우에 속까락
집어 드는 거, 멍쿠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우리네의 달성공원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인
달성공원은 지금도
힉차게 가동 중이다

『대구시지』 大邱詩誌 3집 대구의 음식과 명소편 『노곡동 징검다리』 중 『달성공원』 전문

*째이쌍고: 째이다는 바짝 좁혀든다는 의미로 쓰는 경상도 방언인데 살림살이 등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들 때 째인다, 째힌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

*납딱보리밥: 보리쌀을 기계로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로 지은 보리밥을 말한다. 보리쌀은 쌀보다 거칠기 때문에 밥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삶아야 하지만 누른 보리쌀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옛날 한 시절, 납딱보리밥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납딱은 납작의 경상도 방언이다.

*미리치: 멀치

*절이삭은 :곰삭은

*정구지: 부추

*가실: 가을

*잃어뵈 알라: 잃어버린 얘기

*이바구: 이야기

*나갈 구녕: 빠져나갈 구멍 즉 出口를 말함

*에미 에비를 떨가뵈: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와낭상겘치: 와낭은 완약(세다는 뜻)의 의미가 있으니 아기가 크게 소리 지르며 울 때 와낭상겘치 운다는 말을 쓴다.

*뱀 구실리는 기랑: 뱀을 구슬리는 것이라

*원시이: 원숭이

*어뵈: 제법

우리나라의 빼어난 예향藝鄕이었던 개성에는 그 옛날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하여, 저명 유학자,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 개성의 절경, 박연폭포, 천하의 기녀 황진이 등 셋을 일컬었고 그에 못지않았던 예향, 대구의 대구삼절大邱三絶로는 대구의 명승 달성공원達城公園, 유명 서화가,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 대구국채보상운동의 어머니로 추앙 받는 기생 앵무妓生 鸚鵡가 있었다. 대구삼절 중 대구의 유명한 자랑거리로 첫 번째에 오른 달성공원이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산세가 수려한데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듯, 역사적인 유물 유적들도 적지 않은 한 편으로, 도심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한때 ‘자동차문화’라 하여 집집이 자가용 차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명승지이던, 휴양지이던, 유명음식점이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는 교통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어데 실 만한 데로 갈라카마 팔공산 동화사, 동촌 유원지 가창 냉천은 너무 멀고 화원 유원지, 옥포 용연사 수성못꺼정도 너무 멀다 달성공원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 곁에서	대구 어데서나 시영市營버스만 훗팍 집어타마, 밥상 우에 속까락 집어 드는 거, 멩쿠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우리네의 달성공원
---	---

그 시절 대구 제일의 유원지로 각광받았던 동촌유원지나 달성공원은 둘이 다같이 대구의 일등 유원지 위상位相을 두고 네가 형이네 내가 형이네 하면서 서로 1등 자리를 다투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시내에 인접한 곳이라 편리한 교통 때문이었다. 또한 달성공원은 바로 옆에 전국 규모인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인 서문시장西門市場을 끼고 있으며 인근에는 서민들의 안식처였던 인동촌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한때 전국에 이름을 드날린? 유명 환락기歡樂街이자 유곽촌遊廓村이었던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자리한 적도 있어 항상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더한 것이다.

달성공원이 1905년 공원 조성을 시작한지 7년 후 1969년 8월 1일 개원한 이후, 크게 융성隆盛을 가져온 계기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1970년 5월 2일 문을 연 동물원 개원이 아닌가 싶다. 당시, 한강 이남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훌륭했다는 소리를 들은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은 대구 장안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시절에는 호랑이나 코끼리를 구경하려면 반드시 서울 창경원을 가야만 하지만 고향 마당 한복판에서 갖은 진귀한 맹수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다니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다.

우리네의 인생살이나, 유랑극단이나 서커스 같은 구경거리리는 때로 장내場內에서보다 장외場外에서 볼거리가 훨씬 더 많은 때가 많다. 달성공원이 꼭 그랬다.

달성공원 귀경은 안에서보다 밖에서가 볼 끼이 더 많을 때가 많다	다 볼라카마 어북 작은 사까수나 진매 없다
가짜약장사 아재씨들 뱀 구실리는 기랑, 이바구로 녀살대는 거, 원시이 재주 넘는 거, 지집아아들 사발 돌리는 거 꺼정	거게다가 야바우꾼들 요술 부리는 거, 자칭 시민운동가들이 고함으로 열변을 토하는 거, 꺼정은 참 빌난 귀경꺼리다

겨우 ‘밥 먹고 살기’에도 힘이 부쳤던 그 시절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빈곤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시절에 맞추어 여기저기에 사람들의 “흥청거림”이 있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의 흥청거림, 선달 그믐 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한 해가 바뀌는 연말 세모歲暮 즈음의 공연히 마음이 설레는 흥청거림, 아이들 소풍 가는 날이나 운동회하는 날의 흥청거림, 동네에 공짜 영화 들어오는 날이나, 서커스단이나 약장사가 동네에 들어오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 모두는 웬지 마음이 들뜨고 뭔가 마을에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흥청거림이 있었던 것이다.

살아가는 가치관의 모든 것이 마치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區劃지우는 직선과 같이 말갈게 정돈된 지금의 시절에는 옛날과 같은 ‘흥청거림’이 없어서인지 살아가는 재미가 적은 것 같다.

최근 얼마 전, 달성공원을 찾았다가 쇠락할대로 쇠락한 달성공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현듯 가곡 ‘황성옛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것을 말하여 주노나”의 구절인데 달성공원의 지금 형편이 꼭 이와 같았다. 우선 행하니 텅 빈 것 같아서 사람이 없었고, 사람이 없으니 흥청거림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달성공원의 핵심시설인 동물원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설까지 설왕설래하니 달성공원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달성공원”이라는 우리네 고향의 거대한 추억의 흔적이 또 하나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이번 글의 모두冒頭에 소개한 작품 『달성공원』이라는 시편은 한참 옛날에 써둔 작품이라, 지금의 달성공원의 형편과 다소 내용이 맞지 않은 글귀가 보이는데 소개하자면

달성공원은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다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인
달성공원은 오늘도
힘차게 가동 중이다

라는 시구가 있는데 필자가 최근 달성공원을 찾았을 때는 “달성공원은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다. 대구시민의 희망발전소인 달성공원은 오늘도 힘차게 가동 중이다”란 글귀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희망발전소”의 엔진이 꺼져버린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네의 달성공원과 같은 훌륭한 자연자원이 도심지 한복판에 자리한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바라건데, 모든 대구시민들이 온갖 지혜와 중지衆智를 모아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우리 대구의 명승名勝인 달성공원이 멋지게 재탄생하여 그 옛날의 영화榮華를 되찾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부디 달성공원이 대구시민들의 “희망발전소”로 거듭나 힘차게 가동하게 될 날을 고대해보자.

달성공원達城公園은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립공원으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다. 달성達城의 옛 이름은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弗城이라고 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달성은 경주의 월성月城처럼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축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략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토착집단들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달성공원 자리는 본래 달성 서씨達城 徐氏의 세거지世居地였는데 세종 때 서씨 문중의 서침徐沉이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대구부민은 이와같은 서침을 숭모하여 1665년 대구 구암서원龜巖書院에 봉향하였다. 한편 세종대왕은 회화나무를 심어 서침의 마음을 기리게 했는데 현재 달성공원 내에 있는 '서침나무'가 그 나무로 알려져 있다. 저명한 독립투사인 왕산旺山 허위許莚 선생과 민족시인 상화尙火의 시비가 있다.

대구시지(大邱詩誌)는 우리네의 고향인 대구의 서정(抒情)을 비롯한 모든 인문지리적인 요소들을 테마 별로 10集 1,000편의 시로 엮어내는 방대한 기록문학이다. 전편(全篇)을 새로 발굴한 경상도 사투리로 쓰는데 지금까지 7집, 700편의 시를 끝내고 현재 8집을 집필 중이다. 시지(詩誌)라는 말을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시로 기록한다는 말로서 옛 우리네 불멸의 고전인 삼국유사, 제왕운기, 택리지, 동국세시기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문헌들은 시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계간 『햇불』 지에 연재를 시작하는 “상희구 시인의 『大邱詩誌』를 통해서 바라본 1950년대의 대구풍물” 편은 『대구시지』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가장 격동기였던 1950년대를 전후한 소재들을 취하였다.

2·28문예광장

시_{poem}



김선광

등단 『심상』

시집 『나는 오리 할아버지』 (2009)

공동시집 『머리를 구름에 밀어넣자』

무용대본 『나비까페』

대구시인협회상(2003)

대구광역시문화상(2015) 수상

대구시인협회장 역임

한국시인협회 회원

어머니경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내가 시를 낳고
 시가 어머니를 낳았다.
 어린 어머니
 시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시의 등에 업혀
 등계등계 다가와서,
 툭툭 붙은 젖을
 내 입에 물리신다.
 만 권의 경전이
 내 몸 속으로 흘러들고,
 나는 지금
 그 글을 읽고 있다.

2·28문예광장

시조 Korean poem



김미정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당선

제5회 이영도시조문학상 신인상

2017년 대구문학상 올해의 작품상

시집 『고요한둘레』 『더듬이를 세

우다』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시

선집 『결』

곤을동

별도봉 오름자락 푸른 해안을 끼고

떠나고 남은 이 없이 잡풀들 무성한 곳

어디서 길을 잃었나, 어느 곳을 헤매나

곤을동 잠 깨어 물위에 떠오르면

울담이 놓인 자취, 뿌리로 닿는 기억

바람은 고요를 삼키고 귀면 신을 부르네

*곤을동

화북동 서쪽에 있었던 마을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짐.

4·3사건 이후 잃어버린 마을이 대부분 중산간 마을인데 비하여 곤을동만은 해안마을임에도 군인 토벌대에 의해 방화되고 복구되지 않았다고 한다.

2·28문예광장

수필 Essay



서정길

『수필과비평』 신인상 수상.

대구문인협회원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수필집 『알아야 면장하제』

배롱나무에서 선비를 보다

도동서원에서 솔레마을 방향으로 오솔길을 한참 걷다 보니 야트막한 산자락에 아늑한 이양서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비에 젖어서일까. 곱기만 하던 단풍은 어느새 속절없이 떨어져 비탈 여기저기에 누워있다. 무성하던 잎을 몽땅 떨근 채 나무들은 밀려드는 한기에 기늘게 떨고 있다. 멀리 고목이 된 배롱나무도 잿빛 하늘의 무게를 이고 서원을 지키고 있다.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피워 올렸던 배롱나무다. 낙엽이 내 발걸음을 따라 바스락거리며 뒤따른다. 쪽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사한 꽃도 무성하던 잎도 남김없이 털어낸 채 나를 반긴다. 알몸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모습이다. 육체미 선수인 양 미끈한 근육질 몸매다. 풍겨지는 기품은 좌증을 압도할 만큼 매력적이다. 살아온 연륜만큼 무언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음이다.

솔례(率禮)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양서원은 현풍 광씨 일족을 모시고 있다. 지난해 여름 백일홍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을 찾았다. 서원의 뜰에는 백 년을 족히 넘겼을 것만 같은 배롱나무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담장 위로 주홍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아름다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원 지킴이 어른은 광안방, 광지운, 광규, 광황 선조의 덕행과 학문이 붉은 꽃으로 핀 것이라 했다. 그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망우당 홍의장군의 기상과 얼이 이곳에 피어난 것 같았다. 한참을 응시하고 있노라니 황홀경에 취한 듯하고 선경에 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여름이면 배롱나무는 백 일 내내 몸을 태워 잉겔불이 된다. 여태껏 폭염 속에서 시뻘건 불꽃을 피우는 초능력을 본 적이 없다. 가공할만한 에너지를 핏빛으로 뿜어낸 것이리라. 강렬한 태양에 온몸을 태우고 또 태워야만 겨울에도 빛날 수 있는 모양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선비의 품행을 익힌 것일까. 매서운 칼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몸을 담금질 하는 배롱나무가 대견하다. 혹자는 자작나무와 닮았다고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흰 피부이긴 하지만 배롱나무와는 삶의 궤도를 달리한다. 걸만 번드레한 자작나무는 자유분방한 외모와는 달리 커갈수록 심술이 더해진다. 여름이면 사방으

로 가지를 뺏어 햇빛을 독차지하려 아등바등 한다. 겨울이면 웅웅 악다구니를 지르며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양보할 줄 모르는 삶 때문에 무시로 부닥쳐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줄기마다 겹게 변한 상흔이 문신처럼 널브러져 있지만 배롱나무는 결코 싸움을 하는 법이 없다. 설령 짓곳은 심술바람에 웅이가 생겨났다 해도 그마저 부드럽게 감싸준다. 배롱나무는 절제된 삶을 지향한다. 다투기보다는 어울리고 조화롭게 살아간다. 공간이 있다 해서 꽃가지를 함부로 피우지 않는다. 스스로 조형하는 완벽한 기술사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여백을 두는 화가처럼 배롱나무도 꽃가지 사이마다 간격을 두어 절제된 관능미를 뽐낸다.

겨울을 나는 수많은 나무는 꽃과 잎을 지상에 내려놓고 나면 거친 피부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웅장한 느티나무도 황금빛으로 유혹하는 은행나무도 겨울이면 어쩔 수 없이 거친 물골을 드러내고 만다. 반면 배롱나무는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얗게 치장한 줄기는 불순물이 없는 백탄과 같다. 추위가 더할수록 윤기 나는 하얀 피부는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다. 연륜이 더해져 내공을 쌓아 갈수록 사방팔방으로 유연하게 몸을 휘다. 허공을 예술적 감각으로 가르는 다양한 몸짓은 행위 예술가를 연상케 한다. 뜨거운 열기를 참아 내며 피나는 노력으로 다듬어 온 것이리라. 어릴 적 배롱나무를 백일홍이라 불렀다. 백일 동안의 험란한 몸짓이 장관이다. 무희의 붉은 입술처럼 부드러운 꽃이었다. 호젓한 호숫가 정자를 지키며 환하게 피어도 좋고 산사의 피어 풍경소리에 붉은 영혼을 실어 보낸다 해도 멋진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곳에 있어도 잘 어울릴 것만 같다. 발가벗은 배롱나무에 다가가 몸매를 훑는다. 작은 웅이조차 윤기 나는 피부로 감싸고 있다. 어떤 잔가지가 휘어지고 또 다른 가지는 뒤틀려졌지만 서로 영김이 없다. 배롱나무의 기품은 도포를 잘 차려 입은 선비와 흡사하고 하얀 표피는 백자의 품성을 빼닮았다. 도공이 만든 불가마 속에서 눈부신 빛과 열기에 용해되어 태어난 듯 멋스럽다. 여름 내내 뜨거운 열기를 송두리째 흡입하였기에 표피는 은은하게 빛난다. 소박하면서도 단단함을 지녔으면서도 기와지붕의 처마 같은 곡선미는 바라볼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모든 걸 숨김없이 드러내지만, 결코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는 절제된 모습이 매력적이다.

대지의 싸늘한 기운이 뺏속까지 마비시키는 고통에도 묵언으로 수행하는 배롱나무는 선비의 기개세요 흐트러짐 없는 구도자의 자세다. 들숨은 겨우내 땅속 깊이 박아둔 뿌리에 닿게 하고 날숨은 가지 끝 잎눈에 이어 놓지 않았을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여느 나무처럼 온몸으로 수액을 흡입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수많은 봄꽃이 지고 나서야 가지에 연록의 잎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배롱나무에서 광문 일가의 의연한 인품이 느껴진다.

그 무엇도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나를 본다. 지난날의 삶을 송두리째 내보일 용기도, 의연하게 살아갈 자신도 없다. 갈지(之)자 걸음 자국이 선명하다. 잿빛하늘 만큼이나 많은 부끄러움이 밀려든다. 추위 속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공을 간직해 배롱나무, 선비의 품성을 지닌 너를 닮고 싶다.

청소년문예마당

제18회 2·28민주운동 학생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

금상(대구광역시장상)

영송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승연

이 ~ 빨

(부제 : 2·28)

(윗니)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빨들처럼
서로서로
어깨맞댄
청년학도들

(아랫니) 당당하게
맞서싸우자
언젠가는
찾아올
자유민주주의를위해

청소년문예마당

제18회 2·28민주운동 학생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

금상(대구광역시교육감상)

선인고등학교 2학년

박진수

이젠 국가기념일로, 젊음의 항쟁 2·28 민주운동

우린 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접한다. 3·15 의거,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뜨거운 열망과 땀, 눈물, 핏방울로 수놓아진 오늘날 민주주의의 밑바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에 2·28 민주운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운동이 일어난 1960년은 대선 정국이었는데, 대통령 이승만과 자유당은 장 기집권도 모자라 자신이 유고했을 시 직무를 대리할 부통령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출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유력한 부통령 후보는 현직 부통령이자 야당 후보인 장면이었고, 이에 자유당은 본인들이 내세운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대구는, 소위 야도(야당의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직전 선거에서 장면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야당 후보 장면의 지지세가 막강했으며, 2월 28일 수성천 일대에서 있을 유세 현장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정부는 대구 관내의 공립 고등학교 8개에 당일인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 명목 중에는 심지어 조기 중간고사도 있었다.

부당한 등교 명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이 명령을 철회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북고등학교 학생 부위원장 이대우를 중심으로 비상연락망을 조직한 뒤, 2월 28일 당일,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다. 도청으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아가면서 점차 시위대가 불어났고, 이들은 도청, 시청, 자유당 경북도당, 경북지사 관사 등을 돌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학교 밖으로 나오지 못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합류하거나 교내 농성을 벌였고, 시위는 수성천 일대의 유세장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경북지사는 '저들 모두 공산당이다.'라며 시위대를 소위 색깔론으로 몰아갔지만, 시민들은 시위대를 보호해 주거나 이들의 시위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등 응원을 보내주었다. 당시 이 시위로 인해 학생 200여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본 언론인들은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2·28은 훗날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이승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래서 2·28은 현재 대

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처럼, 거리로 몰려나갔던 그들도 고등학생이었다. 그들은 답답하고 부정확한 나라에 항거하기 위해, 주먹을 쥐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 아직 고등학생을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 사람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나라를 바꾸고 내일을 이끌어 나갈 힘이 있는 존재이다. 고등학생들의 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뒤이어 벌어지는 3·15 의거와 4·19 혁명 역시 고등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확산 과정 내내 고등학생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광주로 들어오는 탱크와 공수부대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기다리던 순간, 대학생 및 일반인 시민군들의 '도망가라',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 는 처절한 호소에도, 계엄군의 공세 앞에 끝까지 총을 놓지 않으려던 시민군 고등학생들이 있었다. 6월 항쟁에서는 시위대에게 주먹밥을 전달하는 여고생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생이 가지는 힘은 자신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옳고 그름에 목소리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10대라는 젊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껏 미성년자의 일부로만 생각되어온 고등학생들은, 역사적 순간에서 항상 특유의 열정과 활력으로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왔다.

하지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젊고 열정적인 고등학생들의 헌신으로 일구어낸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2·28 민주운동은, 다른 민주화 운동들에 비해 너무 기억 속에서 잊혀져있다. 당장이 글을 쓰며 그들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젊음과 열정을 곱씹는 나만 하더라도 2·28 민주운동은 최근해야 알게 되었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받지만, 수업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교과 시험과는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관심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 되어있던 2·28이 최근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이제껏 아는 사람만 알고, 알아도 잘 모르던 2·28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리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엔 무언가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홍보로 2·28 민주운동이 진정한 우리나라 첫 번째 민주화 운동으로써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2·28 민주항쟁, 그것은 항쟁의 선례를 찾기 힘들었던, 대한민국 초창기의 항쟁이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던 무모한 항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낙숫물로 바위를 깨듯 점차 부패한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고, 국민이라는 낙숫물이 폭포수처럼 늘어나 쏟아지자 바위처럼 단단하던 부패한 정부는 단숨에 깨어지다 못해 산산이 조각나 떠내려갔다. 그들의 불의를 향한 용기 있는 목소리들은, 훗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데 큰 용기가 되어주었다. 자신의 유리함 혹은 불리함에 따라 앞뒤를 재는 대신, 그들처럼 옳은 것을 쫓아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국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줄 모른다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거나 알고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행동을 끝없이 지속할 것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28 민주운동이 가진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품고 항상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2·28 민주운동의 주역은 고등학생이다. 그들의 가장 강한 무기는 젊음이었다. 젊음이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능력을 모두 총칭하는 멋진 단어이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능력을 모두 담고 있는, 정말 '젊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비교사(경북대 사범대생)들이 2·28기념탑에 참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28 시민정신 확산을 위한 중등예비교사 연수



경북대 유명철 교수가 예비교사 연수에서 강의 하고 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2018년 연중 기획사업으로 ‘예비교사 연수’와 ‘청소년 역사체험’, ‘명덕역 2·28기념무대 고교동아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예비 역사교사 연수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 양 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일 38-9도에 이르는 폭염이 맹위를 떨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경북대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예비교사 연수는 2·28민주운동에서 시작해 3·15 의거와 4·19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답사와 당시의 주역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듣고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호평을 받았다.

예비교사들은 7월 23일 대구시내에 산재한 2·28 기념시설을 탐방해 본 사업회 박명철 고문(2·28 기념탑), 홍종흠 고문(경북고), 안인옥 고문(대



예비교사들이 마산 3·15기념관을 방문해 남기문 3·15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해설을 듣고 있다

구고, 최용호 고문(경대사대부고), 권국현 고문(2·28기념중앙공원) 등 2·28당시의 주역들로부터 기념시설의 안내와 2·28당시의 생생한 현장증언을 들었다. 24일에는 마산의 국립 3·15민주묘지와 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을 견학하고 3·15기념탑에 참배했다. 참배를 마치고 나서 3·15의거기념사업회 남기문 사무국장의 안내로 마산 시내 3·15의거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예비교사들을 인솔한 경북대 사범대 유명철 교수는 “이 번 예비교사 연수는 그동안 간과했던 우리 지역의 훌륭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예비교사들이 2·28민주운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2·28정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3·15기념관에서 기념촬영하는 예비교사연수단

예비교사 연수단이 3·15의거 기념탑에 참배하고 있다





정화여고 댄스동아리 STEP의 공연모습

지하철 1호선 명덕역 2·28기념무대 고교동아리 열정 공연

정화여고, 능인고, 다사고, 영송여고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4월 연중기획으로 진행 중인 대구지하철 1호선 명덕역 2·28기념무대 고교동아리 공연이 계속되었다. 지난 8월 1일 오후 6시 60분 정화여고 댄스 동아리 STEP(지도교사 김혜란)의 공연이 있었고, 8월 8일에는 능인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AUGUST(지도교사 김송설)와 다사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베리메아(지도교사 이광수)의 공연이 있었다. 특히, 9월 9일에는 45명에 이르는 규모의 영송여고 공연단(지도교사 이호형)의 공연이 있었고 영송여고는 2·28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민주의 함성'을



능인고 댄스동아리 AUGUST의 공연모습



영송여고 학생들이 2·28민주운동을 소재로한 창작뮤지컬 '민주의 함성'을 공연하고 있다

선보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동아리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날씨 속에 2·28기념회관 찾아 전시관을 견학하고 2·28민주운동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후 명덕역으로 이동해 공연을 하며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화여고의 김혜란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2·28민주운동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동안 동아리 활동으로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다사고 댄스동아리 베리메아의 공연모습

‘2·28민주운동 역사체험활동’

13개교, 총 450여명이 오는 11월 말까지 역사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 눈을 새롭게 뜨는 계기가 될 것”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28민주운동 역사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학교 수를 넘어 13개교가 신청해 총 450여명이 오는 11월 말까지 역사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8월 29일 대구제일고 41명을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중리중 35명, 9월 8일 매천고 31명등 9월 말 현재 3개 중교가 2·28민주운동 역사체험을 마쳤다.

역사체험활동은 두류공원의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견학하며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2·28기념중앙공원과 당시의 시위로를 답사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이석우 인솔교사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답사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잘 몰랐던 대구의 2·28민주운동에 대해 공부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 눈을 새롭게 뜨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28민주운동 역사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2018년 초·중·고 2·28민주운동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대상인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은 경상여고 1학년 백경주 양
총 34개교에서 984점의 작품들이 출품돼 29개교 151명 입상

9월 20일(목) 오후4시 「2018년 초·중·고 2·28민주운동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이 노동일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과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재화 학교생활문화과장, 대구지방보훈청 백해숙 보훈과장을 비롯해 2·28기념사업회 관계자와 내빈, 수상자,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8년 초·중·고 2·28민주운동 포스터 공모전」 을 실시했다.



백경주(경상여고 1학년)양이 대상인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하고 있다



단체상 수상학교 대표자들이 수상하고 있다
시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재화 학교생활문화과장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총 34개교(초17, 중8, 고9)에서 984점의 작품들이 출품돼 29개교(초13, 중8, 고8) 151명의 입상자들이 배출됐다.

공모전의 대상인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은 경상여상1학년 백경주 양이 수상했으며, 금상인 대구지방보훈청장상에는 백채린(달산초등 5학년)양, 최현석(대구중앙중학교 3학년)군, 김진경(대구제일고등학교 1학년)양이 수상했다. 단체상에는 덕원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제일고등학교가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지도교사상에는 덕원중학교 김창국 지도교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산업학교 신연화 지도교사, 대구제일고등학교 전재준 지도교사가 각각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 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홍원기 대구교육대 미대 교수는 “출품작들은 포스터와 일러스트 두 분야로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수작업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현대적인 감성의 미적 표현을 볼 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회화미와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인 문자와 공간구성, 단순미, 색채의 독특한 사용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는 훌륭한 작업들이 다수 출품되었다.”며 수준 높은 출품작들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단체상을 수상한 경북공업고등학교의 기념촬영

심사평

먼저 3·15 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 지역의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는 대구 정신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2·28 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초·중·고교생 포스터 공모전의 출품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 7점, 중등 187점, 고등 725점으로 총 983점이 출품 되어 그 가운데서 150여점의 작품이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는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보다 민주정신을 현시대에 맞게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품작들은 포스터와 일러스트 두 분야로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수작업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현대적인 감성의 미적 표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화미와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인 문자와 공간구성, 단순미, 색채의 독특한 사용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는 훌륭한 작업들이 다수 출품되었습니다.

초등부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많이 등장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확고한 국가관을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금상 수상작은 인물과 국화인 무궁화 꽃, 태극기의 균형 잡힌 화면구성으로 뛰어난 사실력과 단순 명료한 문구로 전달성과 시각성에서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포스터의 특징적인 표현을 잘 보여줍니다.

중등부는 민주화 정신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금상 수상작은 인체의 하반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면에 학생의 모자를 배치하고 민들레꽃의 색채표현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을 현대적 미감으로 표출한 상징성이 담긴 우수한 그래픽 작업이었습니다.

고등부는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발상과 독특한 화면구성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인물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면서 태극기와 햇불 등의 조화로운 구성과 단일 톤의 색채처리가 돋보이는 수작이었으며, 금상 수상작 또한 기발한 착상과 단순한 문구로 2·28 정신을 집중적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공모전이 전국규모의 전시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주최해 주신 2·28 기념사업회와 심사위원, 참여해주신 학교와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9. 20

심사위원장 홍 원 기

홍원기 심사위원장(대구교대 미술교육과 교수)이 심사평을 하고있다

2018 초·중·고교생



민주운동 포스터공

주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후원 대구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16:00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018년 초·중·고 2·28민주운동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품



대상 grand prize (대구광역시교육감상)

기억하자 2·28
경상여자고등학교 1학년
백경주



금상 gold prize (대구지방보훈청장상)

그들을 기억하리
대구제일고등학교 1학년
김진경



금상 gold prize (대구지방보훈청장상)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어!
대구중앙중학교 3학년
최현석



금상 gold prize (대구지방보훈청장상)

무궁화 필때 우리의 꿈도 피어라
대구달산초등학교 5학년
백채린



2018년 인문학 강좌

유소영(경북대 음대), 김규종(경북대 노어노문),
장호병(전 대구문인협회장) 열강.
참석자들의 호평 받아

2018년 상반기 인문학강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됐다



2018년 상반기 인문학 강좌 3일간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018년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 번 인문학 강좌에는 3일간 연인원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첫째 날인 7월 10일 유소영 경북대 음대 교수의 『소프라노 유소영과 함께하는 ‘오페라와 가곡 여행’』에서는 가곡을 피아노 반주와 함께 다 같이 불러보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즐겁고 유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튿날 11일에는 경북대 노어노문과 김규종 교수의 『영화로 읽는 인문학』 강의를 있었는데 영화 속 여러 내용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신화를 풀어내는 수준 높은 강의로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 12일에는 장호병 전 대구문인협회장의 『맛난 만남-내 삶 글로 표현하기』라는 글쓰기 강좌가 있었다. 장호병 회장은 강좌에서 글쓰기가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주는가에 대해 역설하고 많은 이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째날 경북대 음악학과 소프라노 유소영교수의 강의



둘째날 경북대 노어노문과 김규종교수의 강의



세째날 장호병 전 대구문인협회장의 강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임시총회

2·28기념사업회 공동의장체제에서 단독 ‘회장’ 체제 출범
대구시장과의 공동의장 체제 18년 만에 마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18일 오후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번 정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대표를 대구시장과의 공동의장체제에서 단독 ‘회장’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2000년 2·28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 등록 후 유지해왔던 대구시장과의 공동의장 체제를 18년 만에 마감하고 단독 회장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단독 회장 체제를 이끌게 된 노동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지난 열여덟 해 동안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기념회관이 건립되고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제 단독 회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2·28기념사업회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2·28민주운동이 대구의 정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단독회장 체제를 결정한 임시총회에서 노동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고교생 아카데미

제11차 2·28민주시민 고교생 아카데미 대구시내 15개 고교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21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제11차 2·28민주시민 고교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출발이 된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교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2·28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대구시내 15개 고교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먼저 2·28기념회관 전시실을 견학하고 2·28민주운동 동영상을 시청했다. 뒤이어 노동일 2·28기념사업회 회장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란 주제의 특강을 듣고 마지막 시간에는 경북대 음대 유소영 교수의 『유소영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이라는 오페라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참여한 한 학생은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지역의 훌륭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오페라에 대한 특강도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11차 2·28민주시민 고교생 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이 경북대 음악학과 소프라노 유소영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외벽 사인 설치

기념회관 외벽 사인 및 길거리 알림판, 옥상 난간 사인 신규 설치
가시성 높이는 디자인에 중점 뒀

2·28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외벽사인(간판) 및 지주간판을 제작·설치했다.

이 번 외벽사인 설치 작업은 기념회관 주변의 5곳의 지주간판(길거리 알림판)과 2·28기념회관 옥상 간판 작업까지 총 7곳의 사인을 신규설치하고 디자인을 교체 했다.

특히, 옥상 간판의 경우 지하철 3호선에서 2·28기념회관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어 기념회관의 위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전기조명도 설치했다.

디자인과 시공을 담당한 '새희망'의 송정희 대표는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상징하는 2·28기념회관의 사인디자인과 시공을 맡아 영광이다. 이 번 작업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가시성을 높이는 디자인에 중점을 뒀고 설치작업은 내구성과 안정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 소개 글 영문번역 개정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중순 2·28민주운동 소개글의 영문번역을 완료했다. 이 번 영문번역 작업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의 정희석 교수와 Benjamin Christopher Thompson교수에게 의뢰해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영문 소개글이 몇 가지 표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정작업을 하였다. 먼저, 한국어 소개글 재작성 후 영문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홈페이지 게시용 글과 리플렛 수록용 두 종류로 작성되었다. 아래는 개정된 영문번역의 일부이다.

What is the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2·28")?

"2·28"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It was led mainly by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during the unjust and unlawful Rhee Seung-Man dictatorship.....

2·28민주운동이란

2·28민주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대구교육박물관 개관

2·28민주운동 관련 상설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2·28민주운동의 과정과 역사를 소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 영남권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대구교육박물관'을 공식 개관했다. 옛 대구대동초등학교였던 대구교육박물관은 연면적 5270㎡, 부지면적 1만4002㎡ 규모의 교육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각종 전시실에서 대구 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28민주운동 관련 상설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2·28민주운동의 과정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3년 동안 개관을 준비하며 모은 2만 여점의 전시자료는 2·28기념사업회 최용호 고문을 비롯해 변우용, 조기훈, 이상희, 이상배, 최용호씨 등 지역 유력인사들과 시민들의 기증, 학교와 기관 등의 참여로 수집됐으며 △기획전시실 △교육역사관 △대구교육관 △문화체험실 △학교체험 무빙VR실 △주제전시실 △유아교육실 △특수교육실 △기증 유물실 등을 갖춘 대구교육박물관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차별화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교육 박물관(구.대동초등학교)의 2·28민주운동 기념 전시시설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단체견학

2·28기념회관 단체 견학과 방문이 꾸준히 이어졌다. 최근 2·28기념회관 단체견학 프로그램은 '2·28민주운동 역사체험 활동'과 '2·28기념무대 고교동아리 공연팀 견학', '일반단체견학'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8·9월 기간 동안 대구지역 도서관과 중고등학교의 단체 견학이 이어졌다.



대구 달서구 도원도서관 단체견학

지난 8월 17일 대구 달서구 도원도서관 회원 27명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견학하고 2·28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다. 도원도서관 회원들은 “대구의 2·28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새로운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남중 단체견학

9월 6일에는 영남중학생 16명이 김태훈 지도교사의 인솔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역사교사인 김태훈 교사의 강의와 동영상 시청, 전시관 관람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훈 지도교사는 “최근 복원된 2·28민주운동 당시의 시위로를 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2·28당시의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경북여고 단체견학

9월 7일 경북여고생 40명은 2·28기념회관을 단체 방문해 전시관을 견학하고 2·28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번 경북여고 학생들의 2·28기념회관 방문은 사회적 기업 '메시지팩토리'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2·28민주운동 참여 8개 학교중 하나라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말했다.



대구 남구 어울림도서관 단체견학

지난 9월 22일 대구 남구 어울림도서관 회원 22명은 2·28기념회관을 방문하고 전시관을 견학했다. 전시관 견학 후 회원들은 2·28동영상을 시청했다.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 단체견학

9월 29일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 회원 45명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인솔로 2·28기념회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견학했다. 용학도서관 회원들은 전시관 견학 후 2·28기념탑을 방문해 참배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원화전시, 가을독서문화축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에서는 지난 8월 초~9월 말까지 2·28기념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원화시리즈 전시를 개최했다. 8월에는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했고 9월에는 동화 원화, 10월에는 '싸움 소 칠성이'를 주제로 원화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28도서관 가을독서문화 축제』를 개최해 시낭송, 영어회화, 연극수업, 연극놀이, 논술교실, 경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28기념회관 홈페이지(www.228lib.or.kr)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 053-257-2280,2282

2·28도서관 가을독서문화축제

강좌명	대상	일시 및 기간	신청기간
발음 교정으로 배우는 시낭송 <small>*교재비: 5,000원</small>	일반인 20명	10.16.~12.18 매주 화요일 10~12시	
생활 속 영어회화 <small>*교재비: 15,000원</small>	일반인 20명	10.17.~12.19 매주 수요일 15~17시	10.2.(화)~10.12(금) (11일간)
취미로 시작하는 연극수업	일반인 20명	10.17.~12.19 매주 수요일 19~21시	
그림책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small>*교재비: 10,000원(10회차)</small>	유아 6~7세 10명	10.18.~12.20 매주 목요일 16:30~17:30	10.2.(화)~10.14.(일) (13일간)
바른 인성을 위한 창의논술교실 <small>*교재비: 3,000원(8회차)</small>	초등학생 1~3학년 20명	10.20.~12.2 매주 토요일 10~12시	
우리아이 경제교실	초등학생 1~3,4~6학년 20팀	12.8.(토요일) 10~12시, 14~17시	11.1.(목)~11.30.(금)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시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구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결석 및 포기시, 교구교재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www.228lib.or.kr)
문의전화 257-2280,2

 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



칠성이 황미경 | 대웅진그림

새로운
문화
창조하는 기업

hs

ENTERTAINMENT

FESTIVAL / SPORTS / CAMPAIGN / PROMOTION



문화를 만나는 일!

현성문화기획이 만드는 일상입니다.



5
늘을 넘어

1
함께하는 내 | 로

— DGB 51 anniversary —

고객을 생각한 시간 51년,
당신의 어제와 오늘에는
DGB대구은행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넘어
더 큰 내일로 함께 향하는
당신의 평생 금융이 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